



# 고지도 속 이야기 역사의 진실에 귀 기울이다 한국해연구소 이돈수 소장

글 박성하 사진 이돈수 소장 제공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최소한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한국해연구소 이돈수 소장은 40여 년 동안 한국의 고지도를 비롯한 근현대 자료를 수집·연구해 왔고, 이를 토대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 동해 표기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1만 시간을 넘어 2만 시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그의 특별한 아카이브는 오늘도 켜켜이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한국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와 관련 고지도를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동해에 ‘동양’, ‘동해’, ‘한국해’로 표기된 지도를 400점 이상 소장 중입니다. 대부분 1850년 이전에 제작된 고지도로 상당 부분이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지도 컬렉션으로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 40년 동안의 결과물입니다.

대학 시절 우연히 고서점에 들렀다가 오래된 족보를 펼쳐보게 되었는데, 맨 앞장에 있던 산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산도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을 묘사한 그림지도입니다. 훗날 후손들이 무덤에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두었지요. 이 산도를 보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지도 한 장에 삶과 죽음이 녹아 있고, 흑백의 콘트라스트가 주는 매력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지도를 하나둘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컬렉션 하나, 하나가 소중하고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소장품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집한 지도 모두가 그 나름의 이유와 가치가 있어 그중 몇 점을 가려내는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컬렉션 전체가 하나의 큰 대표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선택하려고 하면, 제가 연구하고 수집하는 ‘북방영토’, ‘동해 표기’와 관련한 주제 중에서 상징성이 큰 것을 주관적인 기준에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상원 도서관에서 본 ‘조선왕국전도’입니다. 두꺼

운 4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뒤 알드(Du Halde)의 《중국지》에 삽입된 이 지도는 독도를 우리 땅으로 그렸고, 또 우리의 북방영토의 경계를 잘 보여줍니다. 유럽에서 한국을 단독으로 그린 첫 번째 지도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고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로 제작된 ‘대한지도’인데, 엽서입니다. ‘동해’를 ‘대한해’로 표기하고 있고 대한해협을 표기도 보이는 지도입니다. 간도의 일부도 한국 영토로 그리고 있고 울릉도 표기 왼쪽 옆엔 울도라는 표기가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리원익이 1906년경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해의 표기가 대한제국 시기에는 ‘동해’가 아닌 국호가 포함된 명칭인 ‘대한해’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가 빼앗은 동해 명칭은 동해가 아니라 국호가 사용된 ‘대한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도재단과 함께 진행한 <해양경계선이 그려진 고지도 속 독도> 전시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정하는 해양경계선이 그려진 고지도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고지도 자료를 발굴하기 전까지 알려진 해양경계선이 그려진 고지도는 4~5점이 넘지 않았어요. 2017년 해양경계선이 그려진 일본 고지도 2점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2021년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19세기 후반의 지도 6점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전시를 통해 서양 10여 개국 고지도 24점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고지도가 많이 공개되지만, 대부분 전근대적 자료여서 근대적 시각으로 볼 때 자료로서의 가치가 의문시되는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시각에서 바라본 독도의 국제적 영유권 인식과 관련한 고지도를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발굴된 지도를 위주로 전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는 교육부 인정을 받은 교과서에 사용된 지도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강제 병합 이전, 세계가 바라본 독도의 영유권 인식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 영토 독도의 제3국 홍보에도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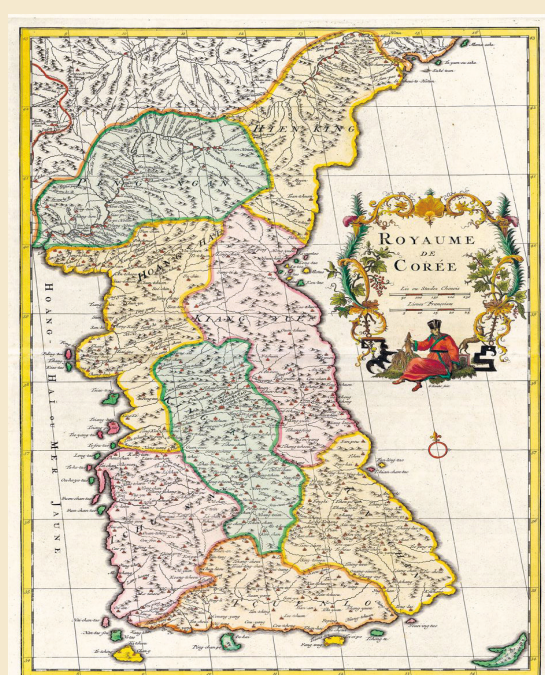


전시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일제강점기 이전 세계 각국에서 인식한 독도 영유권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 해방 이후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영토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 임자 없는 땅이라 우기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지만, 이 당시 세계 10개국에서 제작된 해양경계선이 그려진 독도를 보면 모두 우리의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해방 직후 초기 스카핀(SCAPIN) 문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련된 지도에서도 초기엔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정한 영토 경계선이 나타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 스카핀 문서의 지도에 나타나는 해양경계선의 근원을 찾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고히 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최근에는 ‘미발굴 외국 고지도 수집’ 펀딩 프로젝트도 진행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해양경계선이 그려진 고지도는 100시간을 투자해도 한 점을 겨우 찾을까 말까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근대성을 가진 지도로 국익을 위해 수집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펀딩을 진행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 사회적인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미발굴 자료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만들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박물관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소장한 지도의 실물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없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기에 크고 작은 전시를 통해 소장품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